

Ⅱ. 秋季研究發表會論文要約

生命表에 依한 우리나라 地域別 死亡力分析

金 正 根
李 英 煥
全 泰 允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우리나라의 生命表는 過去 日政下에도 몇篇 作成된 바 있으며 이들은 人口센서스 結果를 利用한 것도 있고 戶籍申告를 通한 動態統計資料를 利用한 것도 있다. 그當時만 하더라도 動態申告(出生, 死亡等)率이 매우 높아 動態統計資料를 利用하여 生命表를 쉽게 얻을 수 있었으나 8·15解放, 6·2動亂 等으로 말미암아 動態申告率은 低調하고 不正確한 關係로 이를 通한 直接的인 生命表作成은 거의 期待하기 어려운 實情이다.

따라서 動態申告資料보다는 比較的 正確한 セン서스結果를 利用한 間接的 方法에 依한 生命表를 作成하여 得了. セン서스 結果를 利用하는 方法에도 두 セン서스의 같은 年齢 Cohort 를 比較한 セン서스간 生殘率를 直接 利用하거나 이를 Smoothing(平滑)하여 作成하거나 セン서스 設問中 總出生兒數와 生存兒數를 利用하여 嬰兒 死亡水準을 測定하고 그 水準에 따른 全體 死亡水準을 推定(Brass方法)하는 方法等이 있다.

今般 作成한 生命表는 1970年 人口센서스 結果를 가지고 Brass 方法을 活用하여 만들었으며 이 方法의 強點은 全國은 물론 地域別生命表도 쉽게 作成할 수 있다는 점이다. 前述한 セン서스間의 生殘率 方法으로도 地域別 生命表를 作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方法을 利用하면 セン서스 間의 보다 精巧한 國內人口 移動資料를 必要하게 되는 制約이 있다. 本 生命表의 結果에 依하면 男子 0歲의 平均餘命은 63.22歲, 女子의 그것은 67.08歲로서 지난 66年보다 男女 共히 約 3歲의 壽命이 延長된 셈이다.

<表 1>

韓國人의 ○歲 平均餘命 推移

年 度	e_x (男 子)	e_x (女 子)
55~60*	51.12	53.73
61*	54.48	60.61
60*	59.74	64.07
70*	62.93	66.77
70	63.22	67.08

(註) *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작성

地域別 死亡水準을 보면

<表 2>

韓日間 死亡水準 比較

韓 國				日 本			
年 度	男 子	女 子	年 度	男 子	女 子	年 度	男 子
55	49	51	51	60	63	55	64
60	54	58	60	65	70	65	68
66	60	64	65	68	73	68	70
70	63	67	70	69	75	65	73

地域別 死亡水準은 全國의 死亡確率(q_x)을 100으로 보았을때, 서울, 釜山, 忠南等은 100以下로 全國의 死亡水準보다 낮고 江原, 忠北, 慶南, 全南 等은 100 以上으로 全國의 死亡水準보다 높은 現象을 보여 주고 있다.

全國의 市部, 郡部는 勿論 各道의 市郡과 郡部의 死亡水準은 대체로 郡部보다는 市部가 市部보다는 大都市의 死亡率이 낮음을 볼 수 있으나 一部의 中小都市의 死亡率보다 서울, 釜山과 같은 大都市의 死亡率이 높은 것은 郡部로부터 大都市에로 直接 人口移動한 結果로 풀이된다.

<表 3>

市道別 ○歲 平均餘命

道 別	區 分	市 郡 合 計		市 部		郡 部	
		男	女	男	女	男	女
전 국		63.22	67.08	64.85	68.77	62.03	65.83
서 울		64.98	68.91	64.98	68.91	—	—
부 산		64.55	68.47	64.55	68.47	—	—
경 기		63.40	67.27	65.64	69.60	62.57	66.40
강 원		59.84	63.54	62.19	66.01	59.43	63.10
충 북		61.50	65.28	64.33	68.24	57.12	60.68
충 남		64.53	68.45	66.30	70.27	64.18	68.08
전 북		63.10	66.95	64.37	68.28	62.04	65.84
전 남		62.82	66.66	64.29	68.20	62.42	66.24
경 북		63.40	67.27	65.23	69.17	62.55	66.38
경 남		62.53	66.36	64.46	68.37	62.02	65.82
제 주		63.45	67.32	65.42	69.37	62.55	66.38